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2000년처럼'



남북정상회담일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18일 평양에서 시작된 2박3일간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첫날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연상케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다.

문 대통령 내외와 각 당 대표, 특별수행단 등은 이날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청와대 관저를 나서 헬기를 이용해 성남 서울공항까지 이동했다.

별도의 공식 성명이나 메시지는 없었지만 문 대통령은 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운영진 국민소통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탄 공군호기는 오전 8시55분께 서울공항을 이륙했으며, 1시간5분여 뒤인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오전 6시40분부터 집결한 특별수행단도 전용기에 동승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영접'은 이번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심사였다. 영접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전례에 비춰 역시 공항 영접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관측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호기 안착 직후인 오전 10시7분께 리설주 여사와 순안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실이 됐다.

김 위원장은 순안공항에 미리 도열해 있던 환영인파의 환호를 받으며 공군호기에 다가갔고 평양 시

'영접' 사전 확정되지 않아...리설주 여사와 함께해 金-文 평양순안공항서 따로 출발 백화원 함께 도착

민들은 꽃송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환영인파 뒤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리 여사와 함께 탑승구 앞에 서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인 문 대통령 내외는 밝은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평양 땅을 디딘 뒤 자신들을 기다리던 김 위원장 내외와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힘껏 포옹한 뒤 뺨과 뺨을 부딪치는 서양식 '뺨 인사'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영정 노동당 제1부장과 함께 공항에 미리 도착해 대기하던 화동들은 문 대통령 내외에게 꽃을 건넸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한군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내란히 미리 준비된 벤츠 차량으로 걸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반기는 평양 시민 일부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으며, 일부 시민은 이에 상응된 표정으로 울먹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앞으로 대기하던 차량에 각각 별도로 탑승했다.

그러나 순안공항을 출발한 지 1시간여 뒤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할

때는 같은 오픈카에 탑승한 모습으로 등장해 취재진과 생중계를 지켜보던 이들을 놀라게 했다.

운영진 국민소통수석은 "(백화원 이동) 중간에 카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항을 따로 출발한 두 정상이 카 퍼레이드를 위해 한 차량으로 옮겨 왔다는 것이다.

동승한 두 정상 중 문 대통령이 상석인 뒷좌석 우측에 앉았고, 김 위원장은 좌측에 자리했다. 도착 직후 김 위원장이 먼저 내려 문 대통령을 챙겼고 김정숙·리설주 여사가 동승한 차량이 뒤이어 도착했다.

두 정상의 '깜짝 동승' 역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맞이한 김정일 위원장의 차량에 동승해 백화원영빈관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외 별도 수행원이 동승하지 않아 사실상 '단독 회담'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날 공항에는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김 제1부부장 외에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국제부장, 리호호 외무상, 김수길 총정차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오 평양시 당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희립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함께 영접에 나섰다.

뉴스스

평양회담 지켜본 시민들



북한 평양에서 실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창인 1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아동 전주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견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통일로 한걸음"...일부 "잔치 벌일 때냐"

"통일이 진짜 이뤄질 것 같아"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 앞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서울역 한편에는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한반도 평화기원 사진전과 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성남 공항에서 평양으로 출발했다. 서해 직항로로 이동한 전용기는 오

정상들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니 너무 신기하다"면서 "진짜 통일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방지선(37)씨는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던 남북이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해온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산 가족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아팠는데 이번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져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역 역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였다. 생중계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은 대합실 곳곳에 설치된 텔레비전 앞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의 전용기를 타고 성남 공항에서 평양으로 출발했다. 서해 직항로로 이동한 전용기는 오

2018 남북정상 평양 회담 '에 시민들 통일 기대감 고조'

'실효성 있는 회담기대', '도발 중단 전제해야' 지적도

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시민들은 일제히 시선을 모았다. 일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화면을 지켜봤고 휴대전화를 꺼내 생중계를 촬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나왔다. 나왔다"고 외치는 소리에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관심이 없던 시민들도 주변이 환호하자 화면 앞에 모였다. 시민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에서부터 문 대통령 내외가 탄 차가 화면에서 벗어나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이현아(17)양은 "남북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만 배웠었는데 이렇게 직접

도 했다.

고창현(50)씨는 "남북 정상이 만난 일이라 더할나위 없이 좋다"면서도 "다만 올해, 내년까지도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었는데 남북이 화해해서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의미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도 있었다.

박래혁(77)씨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북한과 잔치를 벌일 때냐"면서 "북한에서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하는 모습에서부터 문 대통령 내외가 탄 차가 화면에서 벗어나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박3일간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하게 된다.

'평양동행 거부' 한국·바른미래 "비핵화 실질적 성과 있어야"

"비핵화 매듭 풀지 못하면 방북단 평양 유람 그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핵화의 의제가 평양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간 것은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한 뒤 "실질적인 로드맵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실질적 조치인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면서 실험장 폐쇄만 갖고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건 구미북경(口蜜腹劍·인연) 꿀을 바르고 배속엔 칼이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합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보여주기식 회담이 아니라 안전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 내용이 담긴 회담이어야 한다.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면 표명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며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언급하며 "정상회담을 한나절 앞두고 유엔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대북제재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선부른 대북 지원 약속은 국제사회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도부와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국제 사회에서 남북회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로 나

뉴스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Together 광산구